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4)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4 (2)96사단 주둔지-(13)관음사 평굴 주변
60여년 전 갯목 설치현장 생생히 남아

입력 : 2007. 07.19. 00:00:00



▲평굴 주변에서 확인된 시멘트로 입구를 만든 갯도진지(위)와 갯도 구축 당시 설치됐던 갯목이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해발 680m 한라산 고지대도 갯도로 몸살

일본군 주둔실태·갯도 구축과정 조사 필요

해발 6백80m 지점에 위치한 한라산 평굴 일대. 조릿대가 무성한 사이로 갯도진지가 시커먼 입구를 드러냈다. 조심스레 갯도 내부로 진입하자 60여 년 전 설치됐던 갯목 등이 수십여 개 남아있는 모습이 펼쳐졌다. 갯목 표면에는 꺾쇠 등이 그대로 박혀있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천연의 비경을 간직한 용암동굴인 평굴 일대도 태평양전쟁 시기에 제주도를 최후의 결전장으로 삼았던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진지가 숨겨져 있다.

취재팀은 지난 14일 신용만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길라잡이로 평굴 주변의 일본군 갱도진지를 찾아 나섰다. 평굴 일대의 일본군 갱도진지에 대한 실체 확인에 나선 것이다.

일본군이 구축한 갱도는 전문 산악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평굴 주변 조릿대가 무성한 평탄지형에 꼭꼭 숨어있다. 갱도는 평굴을 중심으로 반경 1백여m 이내에 3곳이 산재해 있다. 병문천 상류가 지척인 곳이다.

이곳의 갱도는 평탄지형의 지하 암반층을 뚫고 구축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주도에 구축된 갱도 대부분이 오름지형을 뚫고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무엇보다 이 일대의 갱도는 내부에 갱목 등이 수십여 개 남아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취재팀이 처음 맞닥뜨린 갱도는 길이가 12m 정도 된다. 이 갱도는 전면에 5m 정도의 교통호에 이어 직선으로 하향 전개된다. 갱도 전체가 현무암 바위를 깨고 만들어져 있는데다 균열이 나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부분은 이미 무너져 있어 겨우 한사람이 진입할 정도다.

이곳 갱도내부의 갱목은 천장부가 무너진 지점 이후 공간(3백90cm×3백10cm 안팎)에 무더기로 쌓여있다. 바닥에 박혀있는 갱목 사이 폭은 1m 정도 된다. 갱목은 직경이 20cm 정도로 굵은 통나무다. 갱목 사이를 잇대었던 나무판자도 확인된다.

또 하나의 갱도 역시 그 내부에 수십 여개 되는 갱목이 남아있다. 이 갱도 또한 직선형으로 길이가 20여m 된다. 끝부분은 방처럼 장방형의 공간(4.0m×7.0m 안팎)을 꾸몄다. 갱목은 이 지점에 집중돼 있다. 갱목은 바닥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다 꺾쇠 등이 박혀 있다.

또 다른 갱도는 입구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어 관심을 끌었다. 갱도 입구 가장자리를 따라 넓은 돌과 잔자갈을 쌓아올리고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이다. 당시 전시상황에서 물자 등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라산 고지대에 시멘트를 운반해서 갱도입구를 콘크리트로 다졌다는 점



▲해발 6백80m 지점에 위치한 한라산 평굴 주변에서 확인된 갱도진지 내부에서 취재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이곳의 갯도는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시 산천단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제96사단과 연관된 군사시설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평굴 일대에 일본군이 남겨놓은 갯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역사현장이다. 일본군 주둔실태 뿐만 아니라 갯도 구축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제규명을 위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인터뷰/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용만씨]"평굴 일대 아픈 역사현장"



"평굴은 전문 산악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천연의 비경을 간직한 곳이죠. 특히 이 일대에는 일본군이 파놓은 갯도가 여러 개 남아있는 등 아픈 역사현장이기도 합니다."

1977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신용만씨가 평굴 일대에서 갯도를 확인한 것은 약 20년 전이다. 당시 오미자 등을 채취하는 사람을 단속하다가 찾아내게 됐다. 직접 갯도 안에 들어가 본 것은 3년 전으로 당시에도 갯목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평굴 일대 현무암으로 둘러쳐진 돌담 등은 일본군들이 숙영하면서 굴(갯도)을 파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굴 일대의 갯도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라산 어승생악의 갯도 등과 여러모로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어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일대에도 일본군 야전병원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릉지를 평탄하게 하고는 우물도 메워버렸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